

국립광주박물관 40주년 행사 다채

개관 당시 1,000여점 소장품 현재 13만여점 오는 6일부터 벼룩시장·공연 등 잇따라 열려

1978년 12월 6일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이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았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지방 국립박물관으로 지난 40년 동안 발굴 조사 100여 회, 특별전시 130여 회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의 선사, 역사 문화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오는 6일 개관 4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국립광주박물관 전경.

세계 거리미술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Crazy Mr.J'와 One man Band '이말곰'의 '마술&퍼포먼스' 공연(8·9일)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만나 볼 수 있다.

더불어 김주희 명창이 남도 전통의 판소리 무대를 선보이는 40주년 기념 음악회와 '40돌 축하 메시지 남기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온라인 이벤트는 박물관 누리집과 연계하여 SNS에 축하 메시지를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한 126명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벼룩시장 연계 문화행사 무대에 서는 센치한버스.

한편, 1978년 개관 당시 1,000여 점 있었던 국립광주박물관의 소장품은 현재 130,000여 점으로 증가했고, 전시관만으로 출발했던 건축물은 연구동과 교육관의 신축 등 3동으로 확충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업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창동 유적 조사다. 신창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대규모 도자농경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저습지가 확인됐으며 국가사적(제375호)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조사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거나 최초로 발견된 것들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의 생활문화와 농경문화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특별전 및 상설전과 연계해 강의를 듣고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박물관 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35개 교육과정 500여 회이 이루어졌으며, 20,000여 명이 이 교육에 참여했다.

내년 2월 10일까지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한 특별전 '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이어진다. /이보람 기자



3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진행된 '제21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 사승전'.

제21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 사승전

광주서 추모식 진행... 내일까지 추모전

올해로 21주기를 맞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추모식이 3일 오후 5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거행됐다.

선생의 제자들인 광주 소목회 회원들이 스승의 업적을 기려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 사승전'을 열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주 서귀포 소암기념관이 건립된 후 매년 진행되던 추모전과 추모식이 휴식년을 맞으면서 광주에서는 처음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소암 선생의 문하생 20여 명을 비롯해 광주 원로 예술인 및 광주 소목회 회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중간중간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소암 선생의 작품 9점과 문하생 54명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었다.

특히, 소암 선생의 애제자이자 제1호 제자인 소현서예원 류봉자 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1980년 12월부터 스승님을 모시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스승님의 연세가 74세였는데 제주에서 광주, 그리고 목포까지 매월 빠지지 않고 오셔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교통도 좋지 않아 8번 정도 차를 갈아타야 했는데 매번 3~4일씩 서예를 가르쳐 주셨죠."

이어 "스승님이 중강을 하신 지 29년이 넘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스승님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직도 '서예가가 되는



소암 선생의 제1호 제자 소현서예원 류봉자 원장.

것 대신 사람이 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여 명의 문하생이 소암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하는 것으로 이날 추모식은 마무리됐다.

제주 출신의 소암 현중화 선생(1907~1997)이 광주와 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68년의 제 허백련 선생을 방문해 서로의 현판을 써준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1970년 우암 박건복 선생이 소암 선생을 모시고 무진서예원을 운영했으며, 1989년까지 광주·전남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선사했다.

소암 선생은 불교나 노장계통 경전이나 대학 중용, 선서 등 다분히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경지를 노래했다. 또, 모든 서법에 통달, 자유분방하면서도 진실된 필체를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보람 기자

조대영 '영화, 룩다' 출판 기념회



광주독립영화관의 조대영 프로그래머가 첫 번째 영화 책 '영화, 룩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일간지에 연재했던 영화평을 중심으로 묶은 영화 단평 모음집으로, 총 7부로 구성됐다.



1부 '한국영화의 오늘'은 약 40여 편의 영화를 통해 21세기 한국영화들이 관객과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다.

2부 '감독의 이름'은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에 대한 평으로 엮였다. 해외 영

첫 번째 영화 단평 모음집... 내일 광주독립영화관

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과 개성이 강한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3부 '메이드 인 할리우드'는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블록버스터와 애니메이션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며, 4부 '독립영화만세'에서는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화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내는지를 살핀다.

원작소설이 있는 영화를 조명한 5부 '소설과 영화 사이'는 소설의 언어가 영화언어로 바뀌면서 어떤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밝힌다.

6부 '5월과 영화'는 광주민주화운동

을 다룬 영화에 대한 글로 묶였다. 1990년에 만들어진 '부활의 노래'를 시작으로 올해 개봉한 '5·18 헌트페터 스토리'까지 13편의 '5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의 영화인이 쓴 글답게 '5월광주'에 대한 애정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7부는 조씨가 2008년부터 해낸 마다 뽑은 '영화베스트10'으로 꾸며졌다. 한편,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영화, 룩다'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영화인으로서의 조씨를 기록한 '호모 시네마쿠스' 상영을 비롯해 저자와의 대화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